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돌을 통한 관계성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 지 영

돌을 통한 관계성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 지 영

인 준 서

김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은 삶을 살아가고 그 생활을 영위하는 목적과 수단으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연적으로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맺어지게 된다.

우연적인 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맺어져 언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스스로 또렷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의도적인 관계는 분명 그에 따른 목적과 수단이 작용되는 경우이다. 본인의 작업은 앞서 말한 두 관계 모두가 자연의 이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관계”에 관해 특정지어 어떤 것은 옳고 또 어떤 것은 옳지 않다 말하며 분류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그 자체에 주목하였다.

우연적이 되었든 의도적이 되었든 간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관계 맺음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그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사물도 더 나아가 상황까지도 서로 상관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상호연관 되어있는 조각을 제작하게 되었다. 즉 하나의 재질로 완성하여 홀로 온전히 매력을 뽐내는 작품보다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재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제작하여 그 속에 자연의 이치도 담아보고 인간사의 일부도 담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18년 발표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3장으로 나누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고 작품의 표현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형성배경과 작품 표현 방법으로 착안한 “그랭이 기법“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관계“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는 본인

작품의 조형적 표현요소와 제작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관계“라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로 표현된 본인
작업의 작업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해 본 연구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1) 한국 석조각의 그랭이 기법	3
2)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관계성	6
2. 작품의 표현 방법	
1) 석재의 조합	9
2) 석조각의 다양한 질감표현	11
3. 작품분석	13
III. 결 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관계-자연과 인공/ 35x15x24cm/ 화강석, 자연석/ 2018	13
【작품 2】 흐름/ 37x5x45cm/ 화강석, 대리석/ 2018	15
【작품 3】 관계/ 200x200x30cm/ 화강석/ 2018	17
【작품 4】 하루/ 38x10x48cm/ 화강석, 사암/ 2018	19
【작품 5】 합/ 37x10x43cm/ 화강석, 대리석, 사암/ 2018	21
【작품 6】 가족/ 26x20x40cm/ 화강석, 대리석, 사암/ 2018	23
【작품 7】 관계/ 30x25x30cm/ 화강석, 대리석, 사암/ 2018	25
【작품 8】 관계/ 120x80x150/ 화강석, 자연석/ 2018	27

도 판 목 록

<도판 1> 예천 용문사 자운루 기둥부분 4

<도판 2> 경주 불국사 석축 4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회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환경, 생활, 시간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본인은 그러한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본인의 작품에 담아냈다.

돌이라는 작품 재료를 알게 되고 그 재료를 가공하며 수없이 떠올랐던 생각들을 정리하여 작품에 담아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서술하려고 한다.

우선 본인의 작품에서 돌이 가지는 성격은 재료로서의 기능을 이전에 그 자체로서 본인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것을 포괄 하여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한다.

돌은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재료이다.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돌을 본인의 작품에 재료로 사용할 때 순수한 재료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의 의미를 배가시키기도 한다. 본인에게 돌은 자아를 표현하는 근본적인 재료이면서 본인과 밀접해 있는 모든 환경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 재료인 것이다.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완성함에 있어서 작은 어느 부분 하나도 그 존재감을 잃는 작품이 없도록 수없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은 제목을 우선 정하기보다 본인의 생각이 미칠 만큼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물이 완성된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제목 지어졌다.

본인은 지금까지 생각만 수 없이 하고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것은 생각의 끝이 나지 않아서도 있었지만 본인이 관계 맺고 있는 그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생각을 필역할 시간을 놓쳐버린 탓도 있다. 그래서 석조각으

로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의 생각들을 담아낸 작품들은 본인의 모습과 닮아있고 본인이 만난 모든 이들과 함께 맞닥뜨렸던 과정, 환경과 시간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II. 본론

1. 작품 형성 배경

스무 살 중반이 되던 해에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떠나 전라북도 익산 광업진흥공사에서 석공예 수료과정을 거친 후 석재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한국 고건축수리 수료과정 중 석조각인간문화재로부터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불상, 석탑, 1)부도탑, 비석등 한국전통 조각에 관하여 배우면서 한국의 전통미에 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승례문 복원공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과 망치만으로 거대한 돌을 쪼개고 다듬어가며 배우는 전통기법에 매료되었고 본인의 작업과 한국 전통기법을 연관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선조들의 건축 기법인 ‘그랭이’ 기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기법인 그랭이 기법을 접목하여 현대적인 석조각으로 표현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다.

1) 한국 석조각의 그랭이 기법

한국 전통조각 기법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기법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전통 조각들은 그 쓰임이 있고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고 상징적이면서도 생활과 맞닿아있다. 자연 속에 있는 절과 절 안에 있는 불상과 탑, 비석들이 그렇다.

본인은 옛 선조들의 자연과 조화롭게 물질을 가공하여 접목한 기법들에 감탄하고 존경해왔다. 그 중 본인이 매료되었던 “그랭이 기법“은 조각만을 위해 사용 된 기법이 아니다. 주로 나무 대들보 아래 주춧돌과의 접한 부분에서 볼 수 있고 성곽과 같은 돌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건축에 그 근간을 두었

1) 덕이 높은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넣고 쌓은 둥근 돌담

기 때문이다.

“그랭이 기법”은 두 부재가 만날 때 맞닿는 면을 일치시키기 위해 어느 한쪽 부재를 다른 부재의 모양대로 따내는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 한다.

어휘의 정의는 유사하나 연관된 의미로서 '그레', '그레-질', '그랭이', '그랭이 질' 등 동일한 어원에서 변형된 어휘들이 있었다. 이들의 어원은 기둥, 채목, 기와 따위를 놓일 자리에 꼭 맞도록 따내기 위하여 바닥의 높낮이에 맞추어 글을 긋는 데 쓰는 물건 등으로 정의 되었다.²⁾

전통적 기법은 사용되는 재료, 도구 및 행위의 명칭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랭이 기법에서 핵심용어인 “그레”라는 도구에서 파생되어 전해지는 “그랭이 기법”이라고 통일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도판 1> 예천 용문사 자운루 기둥부분



<도판 2> 경주 불국사 석축

<도판1>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막돌을 그대로 사용한 뒤 나무기둥 하부를 깎아서 돌의 거친 면을 맞추었다. 최소한의 가공으로 건물의 기둥을 제작하였고 나무기둥과 돌 사이에 그랭이 기법을 사용한 예이다.

<도판2>에서 볼 수 있는 그랭이 공법은 두 재질이 만나는 이음을 절단하고 가공할 때 아래의 큰 바윗돌의 윗부분을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인위적이지 않

2) 양정무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나는 그랭이 기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2 참조

고 자연스럽게 제작하였다. <도판1>과 <도판2>에서 그렁이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전통적인 한국의 건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데는 도가사상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 진다.

도가의 주 관심사는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었다. 욕망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것을 지켰을 때 얻어지는 즐거움 및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가르쳤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욕망의 작동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이다. 건축에서는 이것이 재료의 기본 물성을 지키는 것이 된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관찰되는 자연 재료의 사용은 이것의 좋은 예이다. 이때 기본 물성이 지켜져야 할 한계의 기준이 중요한 문제이다. 기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재료 자체의 변형 여부이다. 재료가 본래 갖고 있는 자연적 본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다시 나무와 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나무는 본래의 형상과 표면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휘었다면 휘 상태를, 두꺼우면 그 본래의 두께를 유지해야한다. 나뭇결 또한 본래 상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거칠고 갈라졌으면 그대로, 치밀하고 뽀얗다면 그것 역시 그대로 유지 되어야한다. 나무의 종류까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더 없이 좋겠지만 건축이라는 현실적 물질적 매체에서 이것까지는 불가능할 수 있다. 돌도 마찬가지이다. 가능한 한 본래 형상을 지켜야 한다. 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울퉁불퉁한 정도도 많이 지켜질수록 좋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큰 돌인지 작은 돌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크기를 맞추기 위해 돌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작은 돌이 필요하다면 그 크기에 가장 근접한 돌을 찾아서 쓸 것이지 큰 돌 하나를 나눠 써서는 안 될 것이다. 큰 돌이 필요해도 마찬가지로이다. 작은 돌 몇 개를 붙여서 쓸 것이 아니다. 돌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작위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한 가지는 건물 전체의 차원에서 쓰임새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무가 너무 휘어서 공간 사용에 제약을 가져온다거나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면 쓰임새에 맞게 손질을 가해야 된다. 돌도 마찬가지로이다. 조적 축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거나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면 쓰임새에 맞게 손질을 가해야 한다. 재료 사용의 최종 목적은 인간에게 이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다. 자연 재료라고 다르지 않다. 이것이 충족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 쓰임새의 최소 조건이다.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작위와 가공만이 가해져야한다.³⁾

과학이 발전하고 복잡한 기기와 문물들로 넘쳐나는 현대에 지친 사람들은 단순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니멀리즘의 시도를 보인다. 그래서 4)“미니멀라이프”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도 앞서 옛 선조들의 전통 건축에서 보여준 도가 사상의 욕망이 최소한으로 작동된 예로 보았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그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한다는 뜻을 받아들이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단순한 형태의 작품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전통 축조방식인 돌쌓기와 그랭이 기법을 혼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2)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관계성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솔하게 생각한 것 중에 본인을 혼란스럽게 했던 하나는 “이 돌은 자연스러운가?” 또 다른 하나는 “이 돌은 인위적인가?” 하는 것이었다. 자연석 한 덩어리는 분명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단순히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아서라 믿었다. 하지만 반듯하게 재단되어 온 돌을 깎아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였다고 하여 그 본성을 버린 것이 아닌데 인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사람들의 만남에도 본인이 생각해 온 돌에 관한 생각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떤 의도로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

3)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주)북하우스, 2005 p.270~274 요약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말이다.

고 관계를 갖는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또는 인위적이다 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이 그 자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하는 관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다.

“관계”란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다. 또는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음⁵⁾ 정도로 해석된다. 그리고 “관계”는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심리적 관계, 대인관계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인간과 인간의 심리적 관계로서 인간관계는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상호간 형성되는 일정한 합리적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한편 대인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인간관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면하는 경우에 개인의 언행과 태도에 관심을 갖고 형성되는 상호관계이므로 개인과 개인의 교양과 개성 수준의 정도 및 대인적 교섭과 수용태도에 치중하는 내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⁶⁾

상호관계에서 인간은 이미 보이지 않은 끈과 같은 존재로 결합되는 것이다. 돌을 깎으면서 다시금 알게 된 것은 같은 지역의 돌은 그 생김과 무늬가 비슷하지만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상들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물의 물성은 바뀌지 않았다. 누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어떤 다른 물성과 결합해지느냐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사람도 돌과 같이 어떤 곳에서 나고 어떤 환경에 거주하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처한 상황이 바뀌는 것이다. 본인은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부산 사투리를 쓰며 부모님이 낳아주신 신체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을 떠나 익산에서 지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새로이 알게 되고 새로운 환경 속에 금세 적응하고 지내다가 그 이후 서울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작업장을 꾸려 생활하기까지 환경은 수없이 많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많은 만남들이 있었다. 그런 관계들이 지금의 나를

5) 네이버 어학사전<https://dict.naver.com/>

6) 이홍균, 『사회적 압력과 소외』, 학문과 사상사. 2002,P.18

있게 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변화를 겪으며 관계를 맺을 것이다. 본인의 이런 경험들은 돌이 석산에서 채석장으로 옮겨지고 돌공장에 서 재단되어 가공작업을 거쳐서 작품으로 제작되고 다양하게 전시되는 과정들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연 속의 인간은 한없이 작기만 한 존재로 이야기한다. 인간의 이기로 자연이 훼손되고 문명에 발전으로 온전히 남아있는 자연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오래전부터 그 자연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 적응해왔다. 자연주의자, 환경론자들에게는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건물을 짓는 행위 도로를 만드는 행위 등 인위적으로 자연을 가공하는 행위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행위이다. 자연 또한 인간이 존재하기에 이를 내어주며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인간들은 어떠할까?

현대사회에서 인간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 우선 자연 가운데 존재하는 사물과 사건, 인간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사건 등 인간의 생활양식은 변해가고 더욱 정교해졌다.⁷⁾

그 변화 속에 복잡함을 탈피하듯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화 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관계이지만 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 즉, 관계에서의 미니멀리즘이 도래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인위적인 문화의 산물이며 예술 작품은 시대적 제약성을 그 실체로 한다. 즉, 그 표현의 동기, 대상, 소재로 인해서 하나의 역사적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수용적 면에서도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른 작품이거나 동일한 작품이거나 간에 항시 달리 체험되고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

7) 신호현, 『인간의 본질』, 서울: 형성출판사, 1989.P.17

8) 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한 용어로 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

라 작품 자체도 역사적 관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⁹⁾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단순화 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미니멀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들의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본인의 작품에 담아보려고 하였다.

돌, 인간 그리고 사회 더 나아가 자연에 모든 현상들은 “관계”하지 않고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관계성이 어떠한 행태로 바뀌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은 환경에 맞게 또한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하지만 근본 성질을 잃지 않는 작업으로 돌과 닮아 있는 나의 모습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작품 속에 담아보기로 하였다.

2. 작품의 표현방법

본인의 작품의 주요 재료는 돌이다. 그리고 그 돌이 가지는 의미는 중 가장 큰 부분은 조화이다. 돌은 존재 그 자체로 본인의 작업에서 작품의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대신하기도 하고, 환경을 대신하기도, 시간을 대신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각각의 돌은 하나의 개체만므로 본인의 작품을 완성할 수가 없다. 돌 이상의 각 개체가 한 덩어리로 조화롭게 접합되었을 때 비로소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이 작품에 담고자 하는 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만의 규칙으로 정하였다.

1) 석재의 조합

본인의 작품에서 관계와 조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돌들을 접합하여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랜이 기법의 이음새부분을 차용하였다.

각각의 돌들이 쪼개진 형태로 또는 절단되어 가공되어진 형태로 결합한다.

9) 아놀드 하우스저, 『예술과 사회』 한석중 옮김. 서울 홍익사, 1981, P.103-110

그리고 접합하는 방법은 그 각각의 이음새를 그랭이 기법을 사용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을 아귀가 맞듯 서로서로 접합하여 결국 결합되어진 전체가 크게 한 덩어리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 결합하여 전체형태로 구성되기까지가 외적으로 보여 지는 형태의 표현 방법이다.

본인은 앞서 전통조각의 한 종류이자 본인을 매료시켰던 그랭이 기법이 그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한다고 기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듯 인위적인 듯 그랭이 기법은 각각의 자태를 뽐내면서도 전체를 거스르지 않는다. 조화로움을 강조한 선조들의 미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과하게 가공하지 않은 절제된 가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 또한 어떠한 형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돌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게끔 작품을 제작하려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그랭이 기법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려 해도 그 근본을 건축물에 둔 그랭이 기법을 작품에 온전히 가져 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결합) 부분을 그랭이 기법에서 착안하여 소품을 먼저 제작하였다.

본인의 【작품 1】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자연석의 일부를 깎아내서 다듬어서 마감한 화강석을 끼워 넣어 그랭이 기법을 접목하였다. 산이나 들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자연스럽다할 수 있는 자연석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정성껏 정마감도하고 물갈기 연마 마감으로 광도 내면서 반듯하게 절단한 판석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하여 분리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자연과 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렇게 【작품 8】에서 역시 자연석이 들어가 그랭이 기법을 일부 차용하였다. 하지만 그랭이 기법에 얽매어 매 번 자연석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랭이 기법에서 본인을 매료시킨 이음새 부분의 마감을 차용하여 작품

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원래의 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제작할 수 있게 자르고 깨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원하는 형상이 나오면 그를 접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6】, 【작품 7】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형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자투리 돌을 사용하여 작품 하나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기본 틀이 없었지만 최종적으로 집 형상을 닮아있는 【작품 6】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작품에 “가족;安“이라는 제목을 지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자투리 돌을 꼼꼼히 넣어 반듯하게 절단한 【작품 7】에는 “관계-단체“라는 제목을 지었다. 여러 조각의 화강석과 사암, 대리석 조각들이 서로 접합되어 건물의 형상을 띄기도 하고 색깔 있는 다양한 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후 제작하게 된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의 작품은 원하는 형태의 틀을 만들고 그 틀 모양에 맞게 돌을 절단하였다. 반듯하게 가위로 자른 듯 절단되지 않는 돌의 특성상 절단면을 붙일 때 그랭이 기법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덩어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음새의 안전을 위해 작품 속에서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합해주는 단계를 거쳐 최종 작업이 완성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본인의 작품은 형상이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접합하고 제작을 진행하는 중에 들었던 본인의 생각과 완성 후 본인이 작품에서 느끼게 되는 이미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제목을 붙였다.

2) 석조각의 다양한 질감표현

본인의 작품은 다양한 돌을 사용하였지만 돌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회화에서 보여 지는 다채로운 색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석재에 질감을 달리 하여 다양성을 주고자 하였다. 우선 기본 석재의 가공 순서는 절단이다.

석재를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기 위해 마름질을 먼저 하고 메다듬, 정다듬, 줄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순서로 석재를 가공한다.

마름질은 형체에 맞춰서 돌을 자르는 일을 뜻한다. 【작품 1】의 마천석의 기본 절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메다듬은 마름돌의 거친 면을 쇠파로 다듬어 면을 보기 좋게 하는 것으로 흑두기라고도 한다. 【작품 7】에서 사용된 기법이다.

정다듬은 정을 쪼아 평탄한 거친 면으로 만드는 것이다. 【작품 1】의 마천석 마감,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의 화강석 마감으로 사용 하였다.

잔다듬은 도드락다듬을 한 위를 날망치로 곱게 쪼아 더욱 평탄하게 표면이 균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날망치다듬이라고도 한다. 【작품 6】의 마감으로 사용 하였다.

물갈기는 잔다듬 또는 톱켜기면을 철사, 금강사, 모래, 숫돌 등을 사용하여 갈아서 습식으로 광택이 나게 연마한다. 거친갈기, 증갈기, 본갈기, 광내기의 순서로 마무리한다. 【작품 1】, 【작품 2】, 【작품 5】, 【작품 6】의 마감에 사용 하였다.

그리고 버너마감은 보통 톱으로 켜낸 돌면을 산소불로 굽고, 물을 끼얹어서 돌 표면의 얇은 껍질이 벗겨지게 한 면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작품 【작품 8】 화강석의 마감이다.

본인은 위의 기본 가공과정을 학습하여 작품에 들어가는 석재에 혼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마무리 하였다. 일반적인 건축재로 사용하는 돌의 마감은 물갈기 마감이나 버너마감이 주를 이루지만 본인의 작품의 마감은 메다듬,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버너마감으로 각각의 돌의 접합위치나 크기, 그리고 색깔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3 작품분석



【작품 1】 관계-자연과 인공/ 35x15x24cm/ 화강석, 자연석/2018

【작품 1】 관계-자연과 인공

제작년도: 2018

크기: 35x15x24cm

재료: 화강석, 자연석

제작방법

- 1) 30mm 마천석 판재를 정다듬을 한다.
- 2) 정다듬한 마천석 판재를 직사각형 형태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재단한다.
- 3) 마천석 판재를 물갈기 연마 한다.
- 4) 자연석과 마천석을 그랭이기법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작품설명

인위적으로 절단하고 다듬어진 마천석 판재를 자연석에 끼워 넣은 작품으로 제목에서 그 의미를 말해준다. 자연석과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자연과 인공이 함께 있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2】 흐름/ 37x5x45cm/ 화강석, 대리석/ 2018

【작품 2】 흐름

재료: 화강석, 대리석

크기: 37x5x45cm

제작년도: 2018

제작방법

- 1) 합판에 밑그림을 그리고 틀을 제작한다.
- 2) 도안된 틀을 이용하여 판재를 그라인더로 절단한다.
- 3) 30mm 판재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빗금을 긋는다.
- 4) 60mm 대리석을 굴곡 형태로 깎은 후 물갈기 연마한다.
- 5) 녹색 대리석 중앙에 스테인리스 강선을 꽂은 후 3)작업과 4)작업을 석재용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작품설명

위 작품은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의 흐름이나 물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전체의 덩어리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섯 덩어리의 돌의 결합으로 완성되었다. 가운데 물결치는 형태의 물갈기 마감한 대리석이 그라인더로 흠을 파서 마감하여 붙인 화강석들 사이를 가로질러 결합되어 있어서 강의 흐름으로 볼 수도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시간과의 관계를 말하고자 했다.



【작품 3】 관계/ 200x200x30cm/ 화강석/ 2018

【작품 3】 관계

재료: 화강석

크기: 200x200x30cm

제작년도: 2018

제작방법

- 1) 합판에 밑그림을 그리고 틀을 제작한다.
- 2) 도안된 틀을 이용하여 화강석 원석을 8인치 그라인더로 절단 한다.
- 3) 2)의 작업에 절단 된 부분에 LPG와 산소를 이용하여 버너마감 작업을 한다.
- 4) 정다듬한 반구 형태를 중심에 두고 앞서 도안된 틀을 도안으로 그랭이 기법으로 제작된 화강석들을 바닥에 놓는다.

작품설명

커다란 원형은 우주를 그리고 그 중심의 반구의 모습은 지구를 비유한 형상으로 반구는 화강석을 둥글게 제작하여 속을 비우고 쪼개어 다시 결합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화강석이 그랭이 기법으로 반구를 둘러싸며 큰 원을 형성해 있는데 이는 우주안의 지구의 관계를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작품 4】 하루/ 38x10x48cm/ 화강석, 사암/ 2018

【작품 4】 하루

재료: 화강석, 사암

크기: 38x10x48cm

제작년도: 2018

제작방법

- 1) 합판에 밑그림을 그리고 틀을 제작한다.
- 2) 도안한 틀을 이용하여 노랑색사암, 적색사암, 화강석을 라인더로 절단한다.
- 3) 스테인리스 강선을 꽃은 좌대를 준비 한다.
- 4) 화강석과 사암을 석재용 에폭시로 고정한다.
- 5) 결합한 원위에 구름을 드로잉 한다.
- 6) 정과 망치를 이용해 구름 모양의 형태로 정다듬 한다.

작품설명

세 덩어리의 돌이 원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작업으로 제목은 “하루”이다
그랭이 기법으로 결합된 돌에 부조로 구름을 조각하였다. 해가 뜨고 그 해를
몇 번씩이고 지나쳐가는 구름을 태양처럼 원형으로 제작함으로써 “해”를 뜻하
기도 한다.



【작품 5】 합/ 37x10x43cm/ 화강석, 대리석, 사암/ 2018

【작품 5】 합

재료: 화강석, 대리석, 사암

크기: 37x10x43cm

제작년도: 2018

제작방법

- 1) 합판에 밑그림을 그리고 틀을 제작한다.
- 2) 도안한 틀을 이용해 석재를 절단한다.
- 3) 스테인리스 강선을 좌대를 준비 한다.
- 4) 마천석을 기준으로 작품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레이 기법으로 가공된 돌들을 에폭시로 결합한다.

작품설명

각각 색깔이 다른 화강석, 대리석, 사암의 재질을 물갈기마감, 정마감, 지석마감 등으로 달리 하여 결합한 원형의 작품이다. 각각의 다른 색깔과 재질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고 이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관계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6】 가족/ 26x20x40cm / 화강석, 대리석, 붉은사암/ 2018

【작품 6】 가족

재료: 화강석, 대리석, 사암

크기: 26x20x40cm

제작년도: 2018

제작방법

- 1) 거친 정다듬을 한 포천석을 바닥에 세운다.
- 2) 바닥에 자리잡은 포천석을 시작으로 다음에 들어갈 대리석과 사암, 고흥석을 직각자와 대나무 먹칼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 3) 그랭이 기법을 이용하여 석재를 재단한 뒤 에폭시로 접합한다.
- 4) 3)의 절단된 석재들을 사각기둥 형태로 접합한다.
- 5) 물 갈기 연마와 정다듬을 한 삼각기둥 형태의 마천석을 4)의 작업위에 올려놓는다.

작품설명

외관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집모양의 형태로 크게는 지붕모양의 누워있는 삼각기둥 형태의 마천석과 사각기둥의 형태의 결합으로 제작되었다. 지붕 모양의 마천석을 제외한 사각기둥은 그랭이 기법으로 재단된 화강석과 대리석을 사용하였다. 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가족”이다.



【작품 7】 관계/ 30x25x30cm /화강석, 대리석, 사암/ 2018

【작품 7】 관계

재료: 화강석, 대리석, 사암

크기: 30x25x30cm

제작년도: 2018

제작방법

- 1) 거친 정다듬을 한 포천석을 바닥에 세워 자리 잡는다.
- 2) 1)의 포천석을 기준으로 좌, 우에 다른 석재를 1cm 간격을 두고 놓는다.
- 3) 2)작업에 콤파스를 이용하여 그랭이질 하면서 간격을 좁힌다.
- 4) 간격이 좁아지면 석재용 에폭시를 이용하여 결합한다.
- 5) 절단 되어 있는 석재를 육면체의 형태로 4)를 반복한다.
- 6) 육면체의 형태가 완성되면 상단의 면을 절단하여 연마하여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다양한 석재의 마감 기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거친 정다듬과 물갈기 연마로 질감의 대비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석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체의 덩어리는 육면체의 형태로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있다.



【작품 8】 관계/ 120x80x150/ 화강석, 자연석/ 2018

【작품 8】 관계

재료: 화강석, 자연석

크기: 120x80x150

제작년도: 2018

제작방법

- 1) 사각 파이프로 기울어진 철 구조물을 제작한다.
- 2) 1)의 작업에 자연석을 석재용 에폭시와 양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 3) 하단의 자연석을 기점으로 주변으로 버너마감한 두꺼운 석재들을 그렝이 기법을 사용해 붙여나간다.
- 4) 철 구조물의 전체를 결합 할 때까지 수시로 2)의 작업도 반복하여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자연석과 재단한 석재를 모두 사용한 작품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기둥 형태를 하고 있으나 절단되지 않은 자연석 덩어리 주변으로 붙여나간 화강석들의 무게감으로 느껴져 기울어진 형태가 더 불안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체계가 없이 의식에 흐름대로 결합되어진 작품으로 불안한 관계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IV. 결 론

현대 사회를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는 행위는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 상호관계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비롯해 어떠한 공간에서도 존재하게 되며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존재한다.

복잡하기만 할 것 같은 발전된 기계문명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조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미니멀라이프를 즐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단순함에서 오는 조화를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단순화사회 즉, 무언가에 대해 추가로 더하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여 빼려하는 인간들의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에 대해 본인의 작품에 담아 구상하고 제작하려 하였다.

본인 작업의 주재료인 돌이 작품으로 제작되기까지의 과정과 조각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돌을 결합하여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서 “관계성”이라는 상징적인 주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으로 “그랭이 기법”을 차용하였다.

비록 그 뿌리를 전통 기법에 두고 있지만 본인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실생활의 쓰임에 그 용도를 가졌던 기법이 전시를 위한 작품으로 적용되기까지 조형적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둔탁하고 정적인 형태를 지니는 본인의 작업 전반에서 형상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된 돌의 물성과 그 표현 방법을 위해 사용한 “그랭이 기법”을 본인의 작업에 맞게 구현해내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앞으로도 반복

되고 학습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연구 과제를 가진다. 모든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재료에 대한 연구 그리고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본인의 작업에도 수없이 고쳐하고 이를 발전시킬 노력이 기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돌과 닮아 있는 자아를 반영한 작품으로 그 관계성에 관한 더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더 구체적인 표현방법으로 구현해 내는 것이 본인이 진행하게 될 작품들의 연구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작업에 더 열심히 증진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1) 신호현, 『인간의 본질』, 서울; 형성출판사, 1989
- 2) 이홍균, 『사회적 압력과 소외』, 학문과 사상사, 2002
- 3)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주)북하우스, 2005
- 4) 안영배, 『흐름과 더함의 공간』, 다른세상, 2008
- 5) 서 현, 『배흘림기둥의 고백』, 효형출판, 2012

《번역본》

- 1) 아놀드 하우스, 『예술과 사회』 한석중 옮김. 서울 홍익사, 1981

《홈페이지 및 기타》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2)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 3)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http://www.kofta.org/>
- 4)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 개념사전』, 도서출판 동녘, 2013
- 5) 한국 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6) 김영모, 『전통조경시설사전』, 도서출판 동녘, 2012
- 7) 양정무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나는 그랭이 기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2

ABSTRACT

Study on the Relationship Borm in Stone

-On The basis of my work-

Kim Ji-you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 beings live a number of "relationships" with purpose and means of living and living their lives. And the relationship is accidental and sometimes intentional.

It is thought that the accidental relationship is formed when the water flows naturally and does not know clearly how and when th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And the intentional relationship is obviously a case in which the purpose and means are acted upon. My work begins with the fact that both of the above-mentioned relationships are in line with the nature of nature.

I have noticed that it is not about trying to classify and divide something that is specific about such a "relationship," saying something is right and what is not, but about themselves.

Whether it is accidental or intentional, we all learn to live through that

relationship. And I want to find out why it exists as part of nature. I think it is because not only human beings but also some things in the world go further and the situation exists in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o I made a piece that is related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 work was completed with a single material, and the artwork that boasted all the charm alone was made, and the shape made up of two or more different materials was created.

This thesis is divided into 3 chapters mainly focusing on my work published in 2018.

In Chapter I Introduction, I describe the research direction and purpose of my work and explain how to express my work.

Chapter II describes the formative expression elements of the work and the production method of the work which contains the big theme of "relationship" in addition to the explanation of the "technique of Greengee" which is based on the formation background of the work and the way of expressing the work.

In Chapter III conclusions,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in terms of the work direction and the research tasks of the work that is expressed as a universal and broad topic called "relationship".